



#프랑스

‘미셸 샤푸티에가 와인을 사랑하게 된 이유, 마리우스’

엠 샤푸티에 마리우스 블랑

M.Chapoutier Marius Blanc

지역	프랑스		
포도품종	베르멘티노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등급	Pays d'Oc	시음 적정 온도	6~10℃
테이스팅 노트	사과, 배의 상큼하고도 신선한 아로마가 지배적이며 꽃 향도 은은하게 퍼진다. 신선한 산도와 함께 감칠맛이 감도며 튼튼한 구조감과 균형감이 와인의 견고함을 더한다. 신선도와 더불어 지속성까지 탄탄하여 팔색조의 와인이라고 할 만 하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익힌 채소/ 단단한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		



제품설명



M.샤푸티에의 미셸 샤푸티에가 어렸던 시절동안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옆에서 성심 성의껏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 준, 그리고 와인에서 얻는 즐거움을 알게 해 주었던 본인의 할아버지 Marius를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 낸 레인지로 프랑스의 론 지역이 아닌 랑그독 루시옹 지역에서 자라난 포도들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8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87점
2016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89점
2000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86점

와이너리



M.Chapoutier에서는 와인 양조 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떼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고 있다. 포도가 자라나서 와인에 물어날 때 떼루아의 특징과 그 당시 빈티지의 기후를 고루 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포도와 떼루아의 고귀함이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샤푸티에는 1991년을 시작으로 유기농법에 이은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을 차용하여 현재 모든 샤푸티에 산하의 포도밭의 포도들은 바이오다이내믹(Biodynamique)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미셸 샤푸티에는 전 세계의 몇 되지 않는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의 선두주자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